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b>
		배포일자	2022년 8월 29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체육진흥과	담 당 자	• 생활체육팀장 김형현 ☎440-4081 • 담 당 자 손봉상 ☎440-40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선수들 마음껏 훈련할 수 있도록...인천시, 육상 실업팀 창단**  
 - 29일, 인천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 -  
 - 선수들이 꿈과 희망 가지고, 마음껏 훈련해 기량 펼칠 수 있도록 -

2020년 사격팀 창단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시청 소속 장애인 실업팀이 창단의 결실을 맺게 됐다. 장애를 가진 운동선수들도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꿈을 이루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종목은 육상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9일 인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창단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인천시장장애인육상연맹 박순남 회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육상팀은 인천시장장애인체육회가 민간위탁을 맡게 됐으며, 지난 7월 공개 채용을 통해 감독 1명과 선수 2명 등 경기인 3명이 선발됐다. 육상팀의 감독을 맡게 된 정세란 감독은 전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기초종목 육상 전담지도자를 역임했으며,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갖췄다.

한영석(만22세) 선수는 400m달리기와 멀리뛰기가 주 종목이다.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문태환(만20세) 선수는 100m, 200m, 400m 달리를 주력으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400m 동메달,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0m와 200m에서 각각 동메달의 성적을 거두고, 2021년 바레인 장애인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참가해 100m 5위, 200m 8위에 랭크하는 등 장래가 촉망되는 기대주들이다. 더욱이 인천에서 나고 자라, 인천이 배출한 스포츠인재들이다.

특히 비장애인체육 분야에 비해 고령화가 심한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20대 초반의 젊고 유망한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에 선발된 것은, 앞으로 인천을 넘어 한국 장애인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한 유정복 시장은 “인천 출신의 유망한 지도자 및 선수를 인천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 며 “이번 육상팀 창단이 우리 시 장애인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선수들이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육상팀을 맡아 운영하게 될 인천시장래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22년도 장애인실업팀육성사업’에 공모·선정됨에 따라, 인천시 장애인육상팀은 4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으며, 선수단 운영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